

과연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 지었을까?

이성흠 목사

들어가는 말

과연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 지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질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들어왔고 (물론,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성경을 더 세밀하게 진지하게 읽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근거로 그 답을 찾고, 그 답에서 파생하는 의미들을 찾아가 보려고 한다.

성경에 근거한 고찰

먼저, 노아와 홍수사건을 기록한 성경인 창세기 6~8 장을 근거로 생각해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시는 부분부터 방주를 만드는 부분까지를 또박또박 읽어 나갈 때, 정말 아쉽게도 어떠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거나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능성 즉, 방주가 산 위에서 지어졌을 것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창세기 7장 17절(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에서 기인하는데, 방주가 떠오른 시점이 비가 내리면서가 아니라, 비가 한 참 내린 후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방주의 주재료인 잣나무(고페르나무(^{גפר}))를 쉽게 구하려면 아무래도 산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7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을 자세히 본다면, 방주가 산에서 떠올랐는지 아니면 땅에서 떠올랐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 방주는 “땅”에서 떠 올랐다. 한국어로는 “땅”으로 기록하고, 영어로는 “Earth,” 그리고 원어인 히브리어는 “^{אֶרֶץ}”로 기록되어 있다. 하아레쓰로 발음되는 히브리어는 지구, 땅, 육지, 영토 등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산 위” 또는 “산”과는 연관을 가지지 않는다.¹ 동시에 잣나무(고페르나무)를 쉽게 구한다는 것이 산 위여야만 해서 산 위에서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얻기 어렵다.

¹ F. Brown, S.R. Driver, and C.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4), 75-76.

아울러,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홍수가 40일간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², 비가 40일간 내렸다는 말이다(창 7:4, 12).³ 그래서, 이 표현이 마치 40일간의 홍수 이후에, 물이 산 위까지 차올라서 방주가 떠오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비가 40일간 내렸고, 그렇게 비가 오래 내리면서 물이 불어오르고, 방주는 “땅”에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노아와 홍수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기록한 신약성경을 상고해보자.

첫째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노아”와 “방주”와 “홍수”를 언급하는 것을 본다. 마태복음 24 장 36~39 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동시에 누가복음 17 장 26~27, 30 절은 이렇게 쓴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리하리라.”

이 두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기 위함이었음을 본다.⁴ 노아와 홍수 사건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방주를 지은 위치가 아니라, 노아와 홍수사건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하는 최후의 구원과 심판(Salvation and Judgment)과 맥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만 아시고 갑작스럽게 때문에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⁶

둘째로, “노아”의 이름은 히브리서 11 장에 언급된다. 히브리서 11 장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걸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督勵)하는 곳이다. 그 곳에서 노아는 7 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곳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에 이르렀음을 언급하고 있지, 방주를 어디에 지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관심사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인간의 계획과 열심 또는 욕심과

² 홍수는 실제로 150 일간 있었다(창 7:24).

³ Wenham, Gordon J.: *Word Biblical Commentary 1: Genesis 1-15* (Dallas : Word, Incorporated, 2002), S. 182.

⁴ Donald A. Hagner, *Word Biblical Commentary 33B: Matthew 14-28* (Dallas: Word, Incorporated, 2002), S. 716, 719.

⁵ Alfred Plumm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1896), S. 408.

⁶ John Nolland, *Word Biblical Commentary 35B: Luke 9:21-18:34* (Dallas: Word, Incorporated, 2002), S. 859.

경쟁 등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지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었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⁷

셋째로, “노아”의 이름은 베드로전서 3 장 20 절(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에 언급된다. 이 부분에서 “노아”와 “방주”는 하나님께로의 순종의 대명사이고 그 결과가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⁸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창세기 7 장 13 절(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의 내용을 정확한 숫자로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을 따름이다.⁹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름이 기록된 베드로후서를 살펴보자. 베드로후서 2 장 5 절(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은 위의 누가복음 17 장 26~27, 30 절에서 언급되어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유혹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있다.¹⁰ 다시 말하면, 노아와 홍수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주권적으로 심판하신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다.¹¹

만일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위에 짓도록 명령하셨다거나,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다는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동시에, 노아와 홍수사건을 평가하는 신약성경은 “방주”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상징임을 증거함으로써, “지금여기(Here and Now)”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음을 또렷하게 알게 된다.

성경적 답변에서 찾는 의미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 즉,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짓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⁷ William L. Lane, *Word Biblical Commentary 47B: Hebrews 9-13* (Dallas: Word, Incorporated, 2002), S. 339-341.

⁸ J. Ramsey Michaels, *Word Biblical Commentary 49: 1 Peter* (Dallas: Word, Incorporated, 2002), S. 213.

⁹ Simon J. Kistemaker,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16: Exposition of the Epistles of Peter and the Epistle of Jud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3-2001), S. 146.

¹⁰ Charles Bigg,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eter and St. Jude* (Edinburgh: T&T Clark International, 1901), S. 276.

¹¹ Richar J. Bauckham, *Word Biblical Commentary 50: 2 Peter, Jude* (Dallas: Word, Incorporated, 2002), S. 249.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예를들면, 산 위)에서 몰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¹²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특별한 장소나 거룩히 구별된 곳이나 특별한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먹고 자며 일하고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가 살고 있는 삶의 “지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삶의 “지금”을 떠난 특별한 시간이나, 거룩히 구별된 시간이나, 특별한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먹고 자며 일하고 생활하는 삶의 “지금”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진 것이다. 이 둘을 합하여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의 삶의 시공(時空) 속에 다시 말해 “노아의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역사는 곧,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공표(公表)하기 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와 홍수사건을 이해할 때,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성경이해와 해석으로 나아가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방주는 어디에 감추어져서 몰래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인물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와 시간 속에서 묵묵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견고하고 건전한 이해(Solid and Sound Understanding)임을 알게 된다.

이렇듯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와 시간 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얻는 자의 수를 8 명으로 제한하여 두셨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들지 못했다(창 6:18~22). 만일 누군가 죄의식을 가졌거나 뉘우침을 가져서 방주에 동승함으로써 그 구원의 대열에 끼여들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홍수가 있기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노아의 할아버지이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969 세)인 므두셀라도 홍수가 있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적어도 성경에 드러난 숫자를 셈해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8 명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방주”와 연관한 “마지막 논의”를 진행해 보자.

마지막 논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바 –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방주가 구원의 방편이었지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God’s Sovereign Grace)”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Unconditional Grace of God)였음을 우리는 창세기 6 장 8 절과 9 절의 행간(行間)에서 발견한다. 그것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¹²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라는 의미가 아니다.

기록하는 창세기 6장 9절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하는 창세기 6장 8절보다 뒤에 언급되었음에서 발견된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노아와 홍수사건을 “방주”와 연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발견할 수 밖에 없고, 그 은혜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다. 노아(곧, 8명)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如前)히” 하나님의 백성들(곧, 정해진 인원)을 부르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노아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방주라는 구원의 방편 안으로 넣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如前)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편 안으로 넣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유비(類比, analogy) – 즉, 방주는 궁극적인 유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 를 “예수님과의 연합(Union with Christ)”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의 큰 틀 안에서 발견하고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방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로운 구원의 방편이었기에 노아(곧, 8명)는 그 방주 안에 있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로운 구원의 궁극적 방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곧, 정해진 인원)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음은 방주 안에 있음과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방주는 일종의 그림자로서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기에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 있음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요 15:7)) 동시에 존재하심으로써, “연합”(Un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마지막 논의를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시작된, 방주를 통한, 노아구원계획은 결국,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묘막측(神妙莫測)하신 뜻과 경륜(經綸, Economy)을 나타내신 사건이었던 것이다.

나가는 말

우리는 이 글을 “과연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 지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베드로 전후서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분명한 답을 얻었다. 그것은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 짓지 않고, “땅” 곧, 그가 사는 삶의 현장 곧, 그의 삶의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지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숨어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떼떈하게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 도구로서 믿음의 순종으로 결과물이었으며,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여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걸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논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노아의 8 식구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창세기와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암시된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God's Sovereign Grace)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즉,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것으로 나아갔다. 노아의 8 식구도 21 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은혜로 인하여 방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임을 생각하였다.

결국, 우리가 방주를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인한 “구원”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의 8 식구의 “지금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21 세기를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인 “지금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삶의 현장인 “지금여기”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도전들과 숙제들, 유혹과 핍박을 우리와 연합하여 단번에(Once for all)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속적으로(Ongoingly) 인도하여 나가시는, 방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